

‘부동산 실패’ 부른 수도권 집중 이제 끝내야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 국가 균형발전 관련 대규모 시책이나 프로젝트가 사라지면서 수도권에 초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지방 죽이기’로, 수도권 아파트 수요를 다시 폭증시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 자체의 모순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일 광주상공회의소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지방 인구-기업 흡입할 것”=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리소어링(해외에서 국내로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상공회의소 등 5개 상의 회장들은 지난 6일 정부가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이후 균형 대책 없어
최근 4년 호남인구 수도권 유출 급증
정부 또 수도권 규제 완화 나서
지방 죽이기...국가균형발전 역행
혁신도시 시즌2 등 구체적 실행 절실

규제 완화를 선택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5개 상의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 경제 상황보다 더 절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인 정부 들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의 인구-기업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호남권, 영남권에 이어 2019년에는 세종시가 있는 충청권에서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종 기업 보조금에 세제 혜택까지 주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부동산 실패가 아니라 균형 실패가 문제’=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는 6만 명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수도권 이주 인구는 고작 1만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6배가 증가한 셈이다. 그만큼 지역 내 좋은 일자리와 대학이 없기 때문이다. 호남권만이 아니라 영남권도 마찬가지다. 최근 4년간 16만8000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으며, 이는 그 전 4년간 7만1000명보다 2.5배에 달한다. 지난 2009년 2000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최대 3만6000명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부터 넘겨받은 중부권(충청, 강원)마저 점차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다가 2019년 8000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같은 수도권으로의 지방 인구 유출은 아파트 시장을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여기에 투기세력이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패가 부동산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는 의미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공약-구체적인 실행 계획 시급=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 국가 구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나 사업이 없는데다, 대기업, 대학 등의 수도권 존속 및 이전이 계속되면서 극도의 수도권 집중만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2차 이전은 논의만 될 뿐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대학 등은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인 호남에는 29개(8%), 영남에는 74개(20.4%)의 공공기관이 있을 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2차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움직임이 시급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먼 미래 보고 민주당 혁신...여야 대화 나설 것”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부동산정책 실수요자 보호 원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한 ‘7개월짜리 당 대표’라는 한계를 감수하고 장고 끝에 전대 출마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 변으로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내세웠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하는 문제에 관해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눈앞의 국가 위기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의 문제는 당원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출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장수 총리와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면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의 대화에도 방점을 뒀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에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안에 대한 입장이 밝았다. 이 의원은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해 “블로소득은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대폭, 누진적으로 강화하고 대신 실수요자들에게는 훨씬 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약아파트는 팔고 강남 아파트는 남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며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며 “불편한 상태가 빨리 정리되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어본 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비껴갔다.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일각에서는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더형이 아니라 관리형 성향이 묻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날 회견이 대선 출마가 아닌 당권 출마 선언이라는 하지만 너무 평이하다는 것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

원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다. 국회 진입과 총리가 되기까지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온 이 의원이 정치권과 언론의 험미경 경증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경선 승리의 관건으로 꼽힌다. 여기에 급변하는 시대 공감력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제시도 과제다. 한편, 지역주의 장벽을 깨뜨리는 데 몸을 던져온 김부겸 전 의원의 도전도 강도가 상당할 전망이다. 여기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장외 대권주자들의 암묵적 지원과 친분을 비롯한 여론 내부 견제 심리가 변수로 꼽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당 대표 2년 임기 끝까지 완수하겠다”

김부겸 광주 찾아 출마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7일 광주를 찾아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밝히는 등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로서 임기를 책임 있게 마치고, 당의 승리를 가져다 줄 당 대표가 되었다고 약속드린다”고 사실상 당 대표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뒤 가장 먼저 광주를 찾은 데 대해 “광주의 선택이 곧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대한민국의 선택, 역사의 선택이 되었다”면서 “이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더 큰 민주당이 되는 첫 출발을 광주에서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의원의 영-호남 대결이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서로를 상처 내고 흡입 내면 결과는 두 사람에게 다 초라할 것이며, 민주당 전체에도 마이너스”라며 “국민들의 간절한 대한민국 통합의 꿈을 다시 묘하게 갈라놓는 나쁜 버릇이다. 총선에서 일부 지역주의 단편이 드러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을 의식한 듯 경제성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당 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꿈꿔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권 행보를 위해 7개월짜리 당권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당권 도전과 대권 포기 입장을 고수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전 의원은 “광주를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경선이 떠오른다”면서 “광주시민들은 대선론과 지역주의 등을 얽은 인물인 이낙연에 현신한 후보, 책임을 지는 후보인 노무현을 선택했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호남 출신 당권 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보로, 여론에서 일찌감치 ‘대세론’이 형성된 이후 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또 광주에 대한 남다른 인연과 애정을 강조하며 호남지역 여론을 공략했다. 그는 아버지 김광수 군 비행장에서 근무한 이력,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이력 등을 들며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광주 현안인 5·18 애곡에 대한 차별과 유공자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성공 추진,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 등을 내세우며 광주 민심을 공략했다. 김 전 의원은 8일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 뒤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